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통상규제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 '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0-21(목·금)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급변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25년도에도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통상법무 카라반」을 이어 나감으로써, 업계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청취하고 통상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담당자	주무관	심재영 (044-203-5952)



□ **개요**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한국기업준법포럼
- (일시/장소) '25.3.20(목)~21(금) 양일, 10:00~16:30 / ENA스위트호텔(컨벤션홀, 3F)
- (참석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실장, 다자통상법무관 등
(발제) 국제통상·환경·IT·무역구제법 관련 전문가 및 로펌
(민간) 국내 관련 산업 업체 및 사내 법무실 관계자 등
- (주요내용) 미·중·EU 등 주요 경제권역별로 폭증하는 **글로벌 新통상규제** 및 **산업·통상 정책** 변화를 진단하여 **분쟁 및 규제준수 전략** 수립
 - ※ 해외시장 진출 국내 기업이 접하는 핵심적인 통상법무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서 직면하는 잠재적 분쟁 요소를 적극 환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세부 일정(안)** * 1일차 개회사까지 공개

- (1일차 오전) 통상교섭본부장 개회사/ 트럼프2기 경제안보 및 EU **첨단환경** 규제(세종)
 - 美 트럼프 2기의 경제제재·수출통제, IRA 동향, AI 정책/ EU CSRS(지속가능성보고)
- (1일차 오후) 기후위기 시대의 통상법무: 해외 **지속가능성** 규제 진단(감·장)
 - 美 PFAS(과불화화합물) 환경규제,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EU 에코디자인법, 수리할 권리, CSDDD(공급망실사지침)
- (2일차 오전) 교섭실장 개회사/ 유럽 통상규제의 **역외적용**과 ESG(태평양)
 - EU ESG 실무(공시의무 및 그린워싱),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보조금 규정
- (2일차 오후) 다자법무관 폐회사/ 기술·환경·공급망 관련 **新통상질서**(광·장)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AI 규제, 美·EU 환경(자연복원법 등)·공급망 규제 동향